

발굽삭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젖소능력을 최대로 발휘케합시다.

민음동물병원
수의사 차 건 섭

우리의 낙농현실은 대부분 집약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방목 할때처럼 발굽이 자연마모가 없되고 있다. 그리하여 관리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굽이 자라서 젖소의 자세와 걸음 걸이가 불편하게 변형되어가고, 결국 젖소는 호소할 길없이 발굽에서 야기되는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즉 유량감소, 사료효율감소, 발정 지연 치료비지출 급기야는 발굽하나로 인해 가까운 젖소를 도태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발굽삭제가 필요하다는것은 알지만 젖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바쁘고 또한 귀찮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낙농인은 다음과 같은 발톱에 대한 상식을 갖고 실천하여야 하겠다.

첫째 : 젖소의 발굽은 월간 5% (년간 6.0cm) 씩 자라고 있음으로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은 깎아주어야 한다.

둘째 : 길게자란 발톱은 체형에 맞추어 교정하며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 변형된 발굽은 원인이 다양하므로 우선 원인을 제거하며 동시에 교정삭제를 해주어야 한다.

넷째 : 과장제(過長蹄)와 변형제(變形蹄)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젖소에 많이 발생하며, 체중을 지탱시 발톱사이의 피부

를 과도하게 긴장시켜 균열되게하여 세균 침입을 받게한다. 또한 발뒤굽치로 체중을 받게 하므로 상처가 쉽게 일어난다.

다섯째 : 발굽은 항상 오물과 접촉하므로 질병이 잘 발생하는데, 문제는 병변이 상당히 깊숙이 진행된 연후에야 걸음걸이에 이상이 나타내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여섯째 : 따라서 부제병의 80%는 정기적인 삭제만으로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일곱째 : 부제병은 젖소 전체질병의 37%를 차지하며, 젖소의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발굽의 건강이 젖소의 건강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강조하였으나 막상 목장경영을 하다보면 젖소의 보정시설도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삭제기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요즘은 어렵고 귀찮은 일은 잘 안할려고 하는데다가 잘못하면 발굽을 너무각아 젖소가 절름발이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너무 적게 삭제해주어 얼마있지 않아 또다시 보정하여 삭제하여야 하는 일이 많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간단히 할것같은 발굽삭제도 실재는 발굽생리에 맞추어 앞발굽과 뒷발굽 그리고 안쪽발굽과 바깥발굽을 체형에 맞게 젖소가 편하도록 삭제하고 또한 발굽질병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수의사가 필요하게 되는 실정이다.